

세상속의 눈, 우리들의 추가적인 노력

1. 들어가며

금년 한해 우리 회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분주하였던 것 같다. 4월 15일 포천에서의 건축구조기술사 대회를 비롯하여 5월 26일 건축구조설계기준 고시에 따른 임시총회 및 강습회 개최와 새로운 용역대가 기준 발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0주기 건설 안전 정책세미나와 7월 2일 제1회 건축구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건설교통부 차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 임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한해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결연한 자세로 전쟁터에 나온 투사모습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겠다.

본 글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몇 가지로 요약 해보고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어디에 추가로 집약 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말하고 싶다.

2. 우리의 추구목표

우리의 추구목표를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건설 산업에서 전문가로서의 올바른 참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말을 반대 시각에서 본다면 '현 건설 산업은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를 전문가로서 제대로 대접을 하여주고 있지 않다'로 표현될 수 있겠다. 전문가로서 건설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방향은 여러 관련제도들을 개선하여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일 텐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그간 우리가 목표를 갖고 추구한 몇 가지 큰 이슈는 첫째로, 구조 안전 확인을 KBS 2005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구조계산이 아닌 구조도면을 포함한 구조설계에 의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건축 공사감리 중 골조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조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할 것과, 셋째로 정밀진단 및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구조 안전 확인 및 설계는 구조 전문가 주도로 해야 하며, 넷째로 구조관련용역은 직 발주계약을 통해 품질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에, 덧붙여 우리 회원들끼리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 서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3. 세상속의 눈, 우리들의 추가적인 노력

우리의 추구목표가 건축물의 준공이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이란 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피해논리와 힘의 논리에 의해 무산되고, 한 발짝 진전시키기에도 너무 힘든 게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건축구조기술사'란 직업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구조 안전이란 구조설계 등을 통한 '사정확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건설관계자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답답한 실정이다. 건설 안전기술자가 구조 안전을 책임 질 수 있다는 제안에 '안전'이란 단어만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질 않는가.



김종호 부회장
(주)창민우컨설파트 대표

음과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우리 회에는 많이 있지만, '건축구조기술사'란 타이틀만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갖고 생업에 종사하는 열악한 구조기술사 사무소 200여 개의 지원에 의해 우리 회의 살림살이가 꾸려 나가지고 있다.

이런 규모로 우리 추구목표를 일순간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 현재 대학의 교과과정이 '건축학'과 '건축공학'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건축공학'을 전공한 학생만이 우리 건축구조를 할 수 있게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교육제도의 개편 속에서 우리의 상대방으로 생각되는 건축사들이 더 이상 건축구조분야를 전공한 경험이 있다는 주장을 피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건축구조분야를 하나의 전문분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수순이다.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숨고르기와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명분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달성은 시간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인내를 갖고 기다림의 자세도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우리회원모두가 합심하여 별도로 노력해야 할 점은, 첫째 우리 회 전체 700여 명의 회원 모두가 직 간접적으로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해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관련 학교 교수들과 산업계 종사자들, 각 연구소 연구원들에게도 우리의 목표를 이해시키고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최근의 944모임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우리 회원 상호간에는 비방보다는 격려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 수립이 필요하다. - 기술심의 할 때나, VE 일을 할 때 서로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셋째, '건축구조기술사'란 직업인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최근 모 건설회사 구조팀의 소규모 지자체 관리건물 무료 점검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넷째, 우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내부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겠다. - 우리회 주최로 실시한 신내진기준 강습회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노력들의 기반위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회 임원들이 있다면 우리의 목표 달성시점은 자연스레 당겨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맺으며

새로 작성 공표한 용역대가 기준 발표 후 그 준수를 위해 우리 회 대형(?) 구조사무실 소장들 20여 명이 회동한 적이 있다. 열심히 지켜보자 결의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목표한 대로 끌어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8.31 대책발표이후 건설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경기 하락이 이유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들리는 소문들에 의하면 기대만큼은 않되는 듯하다. 좀 힘이 들더라도 모두 함께 계속 동참하기를 고대해 본다. 또한 학교교육 속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법 보다는 프로그램의 원리와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생각이 모든 구조기술자들의 공통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날 우리 또한 세계속의 엔지니어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